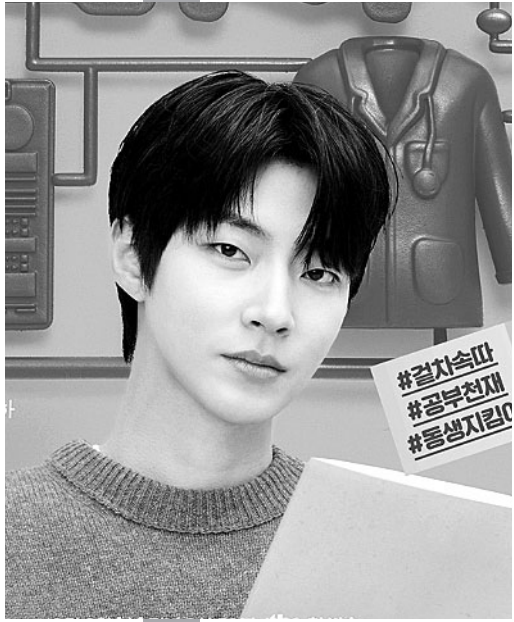


'사랑'에 울고 웃는 안방극장



'조립식 가족'



'사랑 후에 오는 것들'



'나의 헤리에게'

공중파·OTT 멜로 드라마 풍성
한·일 합작 드라마 '사랑 후에...'
'나의 헤리에게' 이별 후 재회 다뤄
'조립식 가족' 세남녀 풋풋 로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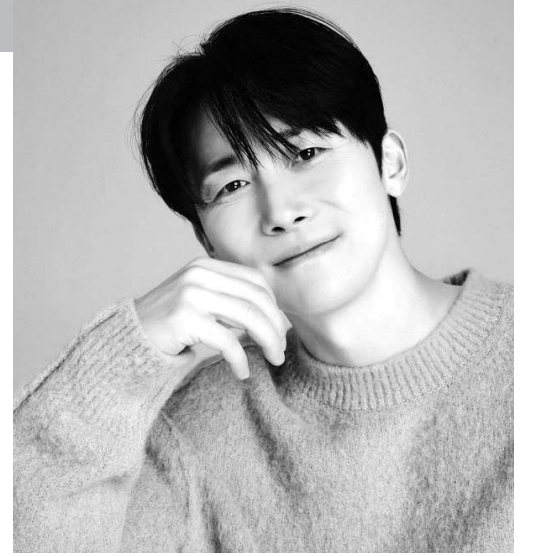
헤어졌다가 재회한 한일 커플의 집은 멜로부터 가족 같은 사이로 지내는 세 청춘남녀의 풋풋한 로맨스까지. 각각각색의 로맨스 드라마가 안방극장을 핑크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먼저 눈길을 끄는 작품은 지난 27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쿠방플레이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이다. 이 드라마는 꿈을 찾아 일본으로 떠난 한국인 여성 최홍(이세영 분)이 우연히 일본 남성 아오키 준고(사카구치 겐타로)를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가 헤어지고, 5년 뒤에 한국에서 재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 아카데미상 신인배우상과 우수 남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사카구치 겐타로와 한국 배우 이세영이 호흡을 맞춘다.
두 배우는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의 설레는 마음부터 다툼을 반복하다가 서로에게 지쳐 이별을 결심하고, 이후 재회해서 둘의 지난 사랑을 곱씹는 감정선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일본 교토와 서울을 오가며 담아낸 아름다운 풍경이 영상미를 완성하고, 서정적인 대사들이 여운을 남긴다.
지난 23일부터 방송 중인 지니TV 오리지널 '나의 헤리에게'도 헤어진 커플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로맨스 드라마다.
아나운서 주은호(신혜선)가 마음속 깊은 상처로 인해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앓게 되면서 주차관리원 주헤리라는 새로운 인격이 생기는 이야기를 그린다.
아나운서 사내 커플이었던 주은호와 정현오(이진

욱)는 8년이라는 세월 동안 뜨겁게 연애했다가, 현실적인 이유로 이별하게 된다.
주은호는 비혼주의자인 정현오 앞에서 결혼 얘기를 슬쩍 꺼내보는데, 정현오는 자기는 결혼을 못 한다며 그 자리에서 바로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한다.
헤어진 후로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둘은 눈만 마주쳐도 싸우는 앙숙이 된다. 신혜선과 이진욱은 치열하게 다투는 와중에도 서로를 향한 애절한 마음이 드러나는 두 남녀주인공의 케미(호흡)를 자연스럽게 묘사해낸다.
내달 9일부터 방송되는 '조립식 가족'은 청춘 배우 황인엽, 정재연, 배현성이 주연한 청춘 로맨스극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처럼 10대 시절을 함께했던 세 남자가 10년 만에 다시 만나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은 청춘 로맨스물이다.
드라마 '주군의 태양' (2013), '푸른 바다의 전설' (2016), '스물다섯 스물하나' (2022) 등을 만든 김승호 PD가 연출을 맡았다.
김 PD는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큰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한 가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마음 따뜻한 힐링을 주는 선물 같은 드라마"라며 "프레임(Frame)이라는 시각 틀에 각 인물의 순간을 한 장의 사진처럼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유쾌 발랄한 로맨스 판타지 드라마 '사장님의 식단표'도 곧 공개된다.
'사장님의 식단표'는 방영 중인 tvN-티빙 드라마 '순해 보기 싫어서' 속에 등장하는 동명의 웹소설을 소재로 한 스펀오프(파생작)이다.
'19금' 웹소설 작가인 남자연이 자신이 쓴 웹소설 여주인공 서연서에 빙의해 남주인공 강하준과 만나는 내용을 다룬다. 한지현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웹소설 작가 남자연과 소설 속 영양사 서연서 등 1인 2역을 연기하고, 이상이는 소설 속 완벽한 남주인공 강하준으로 출연한다.내달 3일부터 티빙에서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연합뉴스

"드러머와 가수 출신의 만남 드라마서 배우 호흡 신기했죠"

종영 '굿파트너' 김준한

"20년 전 장나라 3집으로 함께 무대
드라마에서 동료 변호사로 재회
인생 두 번 사는것 같은 느낌 받아"



김준한은 장나라가 3집 앨범 '나도 여자입니다'로 활동할 당시 드러머로서 함께 무대에 올랐고, 이듬해인 2005년에는 밴드 이지(izi) 소속 드러머로 정식 데뷔했다.
이런 그의 과거는 최근 드라마 '굿파트너'에서 동료 변호사로 장나라와 연기 호흡을 맞추면서 재조명됐다. 온라인에선 '법무법인 대정 두 변호사의 과거'라며 화제가 됐다.
밴드 이지는 인기곡 '응급실'을 남겼지만, 1집을 끝으로 앨범이 나오지 않았다. 당시 김준한은 음악과 연기를 병행하다가 결국 배우 활동에 전념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굿파트너'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이야기다. 대형 법무법인 '대정' 소속 베테랑 변호사 차은경(장나라)과 신입 변호사 한유리(남지현)가 의뢰인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김준한은 대정 대표변호사의 아들이자 차은경의 가까운 후배 변호사 정우진을 연기했다. 늘 갈끔한 정장 차림에 차분한 말투로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후배 변호사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조력자다.
다만 이저러 예의 바르고 차분한 인물을 연기하는 것은 배우로서 쉽지 않았다고 한다.
김준한은 "우진은 자기 특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말해도 허허허, 저렇게 말해도 허허허' 하고 받아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 되려 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자칫하면 우진이 그저 지루한 인물로 보

일 수도 있고 '이도 저도 아닌'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다는 걱정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굿파트너'는 후반부 들어 다소 긴장감이 낮아져 아쉬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드라마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김준한이 좋은 연기를 선보였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었다. '굿파트너'는 최고 17%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작중 정우진은 가정과 아이가 있는 차은경을 남편과 좋아하면서도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은경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지만, 이후로도 우진과 은경의 관계는 좋은 동료로 남는다.
김준한은 이런 드라마의 마무리를 두고 "열린 결말처럼 느껴진다"며 "아마 은경에게는 딸 재회가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찾기 위해서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 같고, 우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해석은 최근 장나라가 '굿파트너' 종영 기념 인터뷰에서 말한 것과도 일치한다. 김준한은 장나라의 인터뷰 내용을 전해 듣고 "역시 저와 호흡이 잘 맞는 것 같다"며 미소를 지었다. /연합뉴스

세븐틴 '스필 더 필스' 선주문 300만장 돌파

그룹 세븐틴이 다음 달 발표하는 열두 번째 미니 음반 '스필 더 필스'(SPILL THE FEELS)의 선주문량이 300만장을 넘겼다.
28일 유통사 YG플러스에 따르면 이 앨범의 선주문량은 전날 기준 308만8천395장으로 기록됐다. 이는 예약 판매 약 2주만이다.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는 "앨범에 수록될 신곡의 제목조차 공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선주문량은 이례적"이라며 "오는 30일 트랙 샘플러를 시작으로 트랙리스트, 하이라이트 메들리, 오피셜 티저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공개되는 만큼, 남은 예약 판매 기간 선주문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븐틴은 올해 베스트 음반 '17 이즈 라이트 히어'(17 IS RIGHT HERE)가 300만장 이상 팔리고, 스페셜 유닛 정한X원우와 세븐틴 옛 앨범의 판매에 힘입어 상반기에만 532만장 이상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다. 세븐틴은 이번 신보 발매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연간 음반 판매량 1천만장을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스필 더 필스'는 '상대를 믿고 감정을 공유하며 고민을 해소하자'는 메시지가 담긴 앨범으로, 다음 달 14일 발매된다. 세븐틴은 신보 발매에 앞서 다음 달 12~13일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월드투어 '라이트 히어'(RIGHT HERE)의 막을 올린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